

19세기 전반 成祐曾과 淸 문사들의 교유 양상과 의미

손혜리*

<차 례>

1. 머리말
2. 연행을 통한 神交와 得意處
3. 성우증과 淸 문사들의 교유 양상
4. 맺음말: 성우증과 淸 문사들의 교유 의미

〈국문초록〉

본고는 成祐曾(1783~1864)이 1818년 무인연행 시 淸의 문사들과 교유한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 글이다. 그는 청의 문사들과 주고받은 시와 편지를 『茗山集』에 수록하였는데, 이는 1818년에 있었던 3차례의 연행 중 유일하게 전하는 기록으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성우증의 연행 기록은 무인연행의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17년에서 1821년까지 비교적 간극이 길었던 연행록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성우증은 연행을 통해 청 문사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실제 이를 성취하였다. 그가 교유한 청의 문사들은 陶澍와 陳用光을 중심으로 翰林院에 재직하며 혈연과 관직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과 창수한 시는 대부분 상대방의 인품과 詩才를 칭찬한 뒤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의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성이 오롯이 표출되어 우정이 빛을 발한 경우가 더 많다. 성우증에게 있어 이들과의 교유는 神交이자 得意處라 하기에 충분하다.

成祐曾, 戊寅燕行, 『茗山集』, 陶澍, 陳用光, 神交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머리말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茗山 成祐曾(1783~1864)은 1818년(순조18) 戊寅燕行에 참여하여 『茗山燕詩錄』과 『北轅日記』를 저술하였다. 『명산연시록』은 天·地·人 3책으로 구성된 것인데 현재 地만 남아 있고,¹⁾ 『北轅日記』는 跋文이 전할 뿐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²⁾ 제목으로 짐작컨대, 연행의 체험을 시로 형상하여 『명산연시록』을 저술하고, 노정과 행적을 일기체로 서술하여 『북원일기』를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茗山集』 8권 3책에는 연행 시 지나간 명승지와 淸의 문사들과 창수한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1818년에는 3차례의 연행이 있었는데,³⁾ 이 중 연행 관련 기록이 전하는 것은 성우증이 유일하여 자료적 가치가 크다. 무인연행 이후에도 연행 사절단은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성우증의 뒤로는 3년이 지난 1821년에 李好閔의 『北遊漫錄』이 전한다. 이후 1822년에 金魯敬의 『燕行錄』, 1826년에 洪錫謨의 『游燕錄』, 1828년에 朴思浩의 『心田稿』, 1829년에 姜時永의 『輜軒續錄』·朴來謙의 『瀋槎日記』, 1831년에 鄭元容의 『燕行日錄』·『燕槎錄』, 1832년에 金景善의 『燕轅直指』, 1839년에 韓弼教의 『隨槎錄』 등 문학적 성취를 이룬 연행록들이 이어졌다.⁴⁾ 성우

1) 『茗山燕詩錄』 地는 동국대에서 발간한 『연행록전집』 69(임기중 편, 2001)에 수록되어 있고, 昌寧 成氏 桑谷公派 成長慶씨 맥에도 소장되어 있다.

2) 李璉秀, 『靑霞紫雲館遺稿』 권7, 『茗山北轅日記跋』.

3) 1818년 6월에 정사 韓用龜, 서장관 趙萬永을 필두로 한 瀋陽問安使가 있었고, 10월 13일에 정사 朴崙壽, 부사 趙萬元, 서장관 李羲肇로 구성된 謝恩使가 있었고, 10월 25일에 정사 鄭晚錫, 부사 吳翰源, 서장관 李潞로 구성된 進賀兼冬至謝恩使가 있었다. 이 중 성우증은 마지막 연행에 정사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하였다.

4) 이들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김명순, 『洪錫謨의 『游燕藁』 연구』, 『동방한문학』 27, 동방한문학회, 2004; 이관성, 『홍석모의 <皇城雜詠> 小考-조선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연경의 시적 형상화-』,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증의 이전으로는 1817년에 崔斗燦의 『乘槎錄』과 『江海乘槎錄』이 전하는 만큼,⁵⁾ 성우증의 여행 관련 기록은 1817년에서 1821년 사이 비교적 간극이 길었던 여행 관련 기록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김노경·金明喜 부자로부터 시작된 朝·淸 문사들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증 본인이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것이 바로 천하의 인재들과 교류하는 것이었다.⁶⁾ 따라서 본고는 1818년 무인연행에 참여한 성우증이 청의 문사들과 창수한 시문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역량을 확인하고 청문사들과의 교류 양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⁷⁾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임영길, 『19세기 전반 여행록의 특성과 朝·淸 文士 交流』, 성균관대 박사학위 예비심사논문, 2016; 허경진·김창화, 『輶軒續錄』을 통해 본 姜時永과 淸朝 文士들의 문화 교류, 『열상고전연구』 33, 열상고전연구회, 2011; 김영시, 『晚悟 朴來謙의 生平과 文學世界』,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허경진·천금매, 『『燕槎錄』을 통해 본 鄭元容과 淸朝 文士들의 문화교류』, 『동북아 문화연구』 19,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왕림동, 『19세기 조선과 청조 지식인의 교류: 金景善의 『燕輶直指』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권정순, 『金景善의 『燕輶直指』에 나타난 西洋勢力에 대한 敘述과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전수경, 『韓弼教의 『隨槎錄』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0.

- 5) 이에 대해서는 김성진, 『『江海乘槎錄』의 書誌事項과 唱和紀俗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참조.
- 6) 成祐曾, 『茗山集』附錄, 『送舍弟遊燕序』. “蓋其宮室之壯麗, 城池之高深, 車馬之輻輳, 人物之繁衍, 寶貨之委積, 雖奇觀也, 與四方博洽之士, 周旋於筆研之間, 始平生得意處也.”
- 7) 필자는 成大中과 成海應을 중심으로 한 昌寧 成氏 桑谷公派 출신 서족 문사들의 학문과 문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던 중 성우증의 생애를 고구할 수 있는 신자료(成仁鎬, 『家世傳考』, 昌寧 成氏 桑谷公派 家藏本; 成泰永, 『昌寧世譜』, 『祖考茗山公行蹟』, 昌寧 成氏 桑谷公派 家藏本; 成長慶, 『疎溪公宗中先祖傳記』, 동진문화사, 2014)를 발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성우증의 생애와 가계, 저술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바 있다.(손혜리, 『茗山 成祐曾의 생애와 여행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237~270)

2. 연행을 통한 神交와 得意處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성우증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⁸⁾ 그의 자는 公善, 호는 茗山, 본관은 昌寧으로, 부친은 通禮院 引儀와 迎華 찰방 및 검서관을 지낸 海運(1764~1843)이며, 조부는 大集이다. 대집이 후사가 없어 형인 大中的 3남 중 차남인 海운을 입적하였으니, 본생 조고는 성대중이며 대중의 아들 海응과는 삼촌간이 된다. 부인은 慶州 李氏 通德郎 頤漢의 딸로, 貞翼公 李浣의 6세손이다.

성우증은 31세(1813, 순조13)가 되던 해 增廣進士試에 합격하고, 36세 때 무인연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43세에 典獄署參奉을 시작으로 관직에 입문하게 되니, 판서 李羲甲(1764~?)의 추천 덕분이었다.⁹⁾ 성우증은 이희갑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바, 1834년(순조34) 동지사행의 부사 李羲準(1775~1842) 역시 일면식이 없던 그에게 함께 연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⁰⁾ 성우증은 병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지만, 이희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희갑과 이희준이 형제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성우증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34년 갑오사행의 서장관으로 成遂默(1792~?)이 참여한 것은 더욱 흥미롭다. 그는 1847년(헌종13) 동지사행의 정사로서 성우증의 동생인 成翼曾(1786~1867)을 자제군관으로 데리고 간 장본인이자 성우증 형제와 같은 집안사람이기도 하다.¹¹⁾ 형조와

쪽)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견인되어 이루어진 후속 작업이다.

8) 성우증의 생애에 대해서는, 成仁鎬, 『家世傳考』, 『先考茗山公事實』과 成泰永, 『昌寧世譜』, 『祖考茗山公行蹟』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9) 成泰永, 『昌寧世譜』, 『祖考茗山公行蹟』. “乙酉拜典獄署參奉, 李判書羲甲, 初無面分, 爲長銓時, 從公議首擬蒙點也.”

10) 成祐曾, 『茗山集』 권1, 『冬至副使李台羲準素不相識, 因尙別提東奎, 要余偕行. 余以病辭焉, 念戊寅鄭尙書竹澗公之事有懷而作』 참조.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850년(철종2)에도 陳慰兼進香使의 정사로 연행한 바 있는 청나라 정세에 밝은 인물이다.

성우증은 이보다 앞서 1829년(순조29) 동지겸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하는 趙秉龜(1801~1845)를 전송하면서 서문을 써준 바 있다.¹²⁾ 이 글에서 조병구의 연행이 世職이며 자신과는 世好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다.¹³⁾ 조병구는 이조판서와 영의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풍양 조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다. 부친은 豐恩府院君 萬永이며, 숙부는 영의정 寅永이다.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이조판서를 지낸 鎭寬과 曠이다. 성우증의 조부 성대중은 1763년 계미사행의 정사였던 조엄과는 정사와 정사 서기의 신분으로 동행한 이력이 있다. 이를 인연으로 두 집안은 세교를 이루었으며,¹⁴⁾ 성우증이 조병구에게 送序를 써 준 것이다. 성우증의 아들 成仁鎬(1815~1887)는 1869년(고종6) 동지겸사은사에 부사 趙寧夏(1845~1884)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하였다. 조영하는 현령 秉錫의 아들로 이조판서 秉夔에게 입양되었으며, 조부는 寅永이고 증조부는 鎭寬이다. 즉 조병구와는 오촌간이 된다.

이처럼 성우증 형제와 성인호가 벼슬을 하고 연행을 가게 된 데는 이희갑·이희준 형제, 성수목과 조엄, 조진관, 조만영·조인영, 조병구, 조영하로 이어지는 교유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성우증은 45세에 濟用監奉事로 승진하고, 46세에 義禁府都事로 이직

11) 成祐會, 『茗山集』附錄, 「送舍弟遊燕序」. “吾宗尚書公爲上价, 强君之行, 不獲辭焉.”

12) 成祐會, 『茗山集』 권5, 「送趙寶雪秉龜使燕序」.

13) 成祐會, 위의 글. “余嘗逮事而得聞之, 今寶雪以小行人, 膺使燕之役, 是世職也, 重任也, 壯觀也. 余當從後車之載以續世好, 而適未之從, 不得無一言之贈寶雪, 其慎哉!”

14) 성대중과 조엄의 교유에 대해서는 손혜리, 「靑城 成大中の 文學活動과 文學論」,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0, 42~43쪽; 성우증과 조병구의 교유에 대해서는 손혜리 (2015), 257~259쪽 참조.

하였으며, 그 해 12월 平市署直長에 제수되었다. 다음해 東部令으로 승진하고, 49세가 되던 해 沙斤道察訪에 제수되어 마을의 積弊를 구제한 공로로 연임되었다. 52세에 致仕한 뒤로는 30여 년 동안 고향 포천에서 농사짓고 학생을 가르치며 저술하는 것으로 만년의 즐거움을 삼았다. 82세(1864, 고종1)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관직생활은 대략 10년이며 6품 이하의 낮은 관직을 역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연행에서 돌아온 성우증은 청의 문사 陶澍에게 보낸 편지에서 “古人の 뜻을 사모하여 송산과 화산을 보고 황하를 굽어보는 것이 끝내 어진 사대부를 중유하여 그들의 훌륭한 의론을 듣고 빼어난 용모를 보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습니다.”¹⁵⁾라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또 陳用光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집사를 만난 뒤부터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어 우울합니다. 매양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새벽이면 더욱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문장이 정대하고 덕의가 가득 찼으니 다만 절로 정신적 교류일 뿐입니다.”¹⁶⁾라고 하였으니, 성우증에게 진용광과의 교류는 ‘神交’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연행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연행하는 동생을 전송하면서 “대개 웅장하고 화려한 궁실과 높고 깊은 성곽과 연못, 많이 모여든 수레와 말, 번성한 사람들, 쌓여있는 보화가 비록 기이한 장관이긴 하나 사방의 박흡한 선비들과 붓과 벼루 사이에서 주선하였으니, 처음으로 평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었다.”¹⁷⁾라고 한 바 있다. 요컨대 성우증에게

15) 成祐曾, 『茗山集』 권5, 『與陶給事澍書』. “然竊嘗慕古人之意, 以爲見嵩華俯黃河, 終不若從賢士大夫遊, 聽其宏辯之論議, 觀其秀偉之容貌.”

16) 成祐曾, 『茗山集』 권6, 『與陳御史用光書』. “自見執事之後, 鬱鬱無可與語之人. 每風朝雨晨, 益不勝耿耿之私, 文章之正大, 德意之粹盎, 祇自神交而已.”

17) 成祐曾, 『茗山集』 附錄, 『送舍弟遊燕序』. “蓋其宮室之壯麗, 城池之高深, 車馬之輻輳, 人物之繁衍, 寶貨之委積, 雖奇觀也, 與四方博洽之士, 周旋於筆研之間, 始

무인연행은 천하의 박학한 선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神交’를 통한 ‘得意處’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생에게 청의 문사 陳用光, 蔣第, 陶澍, 葉志詒, 沈巍皆, 陳肇, 周貽徽, 王可權, 周貽樸, 巫宜稷, 巫初試의 안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¹⁸⁾ 이들 중 일부는 인적 사항과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데, 성우증의 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즉 진용광과 장제, 도주는 모두 7~80세가 넘었고, 왕가권은 도주의 사위이며, 무의계와 무초시는 숙질간이라는 것이다. 주이휘와 주이박은 인척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성우증은 연경에서 돌아온 후 도주에게 편지를 보내어 周小石과 王平舫, 黃翰林的 안부를 물어 본 적이 있다.¹⁹⁾ 주소석은 주이박인데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으며, 왕평방은 왕가권으로 衡山과 澧州의 訓導, 巴陵教諭를 지냈다. 황한림은 당시 한림벼슬을 지내던 黃씨 성을 가진 이 로 보인다. 그리고 진용광에게는 楊介坪과 蔣次竹의 안부를 묻는다.²⁰⁾ 양개평은 楊懌曾으로, 성우증이 안부를 부탁한 인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역시 교류한 이 중 한 사람이다. 자는 成夫이고, 安徽省 六安 사람으로 1801년(가경6) 진사시에 합격한 뒤 1819년(가경24)에 大理寺少卿을 역임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 무렵 성우증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진용

平生得意處也.”

18) 成祐曾, 『茗山集』附錄, 『送舍弟遊燕序』. “戊寅距今三十年矣. 陳石士用光, 已八十餘矣, 蔣次竹第·陶雲汀澍, 已七十餘矣. 葉東卿志詒·沈樸齋巍皆·陳小瀛肇·周藹餘貽徽·王平舫可權雲汀之婿·周小石貽樸·巫雨池宜稷·雨池之姪訥甫初試, 或六十餘五十餘, 其或沒或存, 或致仕或尚在宦籍, 皆未可知, 君至燕都, 試爲余問之也.”

19) 成祐曾, 『茗山集』 권5, 『與陶給事澍書』. “素雪云零, 寒氣晶厲, 伏惟台候萬重, 令卽周小石及王平舫·黃翰林, 俱佳迪否? 日常憧憧, 實難遣于懷也.”

20) 成祐曾, 『茗山集』 권6, 『與陳御史用光書』. “伏惟台候萬吉, 楊介坪亦平善, 蔣次竹莅任之後, 有鱗羽之相聞否.”

광과는 진사 同榜이다. 장차죽은 장제이다. 차죽은 그의 자이며, 호는 問樵로 盧龍 사람이다. 1793년(건륭58) 진사시에 합격하고 山東靑州府同知를 역임하였다.

이들 외에도 성우증이 안부를 궁금해 한 인물 중 沈巍皆의 자는 舜卿, 호는 樸齋이며, 1817년(가경22) 진사가 되고 翰林院編修·四川副主考·湖南學政·順天鄉試同考官·福建道監察御史 등을 역임하였다. 陳肇의 자는 小瀛이며 山東省 平度 사람으로 1817년 진사가 된 뒤 編修를 지냈다. 周貽徽의 자는 藹餘이며 廣西省 臨桂 사람으로 1817년 진사가 된 뒤 편수를 역임하였다. 巫宜楔의 자는 雨池이며 福建省 永定 사람으로 1807년(가경12) 진사가 된 뒤 翰林院士·庶吉士·禮部主事·江蘇蘇松大兵備道 등을 역임하였다. 巫初試의 자는 訥甫이며 福建省 永定 사람인데 1816년(가경21) 舉人으로 莆田縣 儒學教諭에 제수되었다.

이상을 통해 성우증은 도주와 진용광을 중심으로 각각 주이박, 왕가권, 황한림 및 양역증, 차죽과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성익증에게 안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한 인물 중 왕가권은 도주의 사위이고, 주이휘와 주이박은 인척이며, 무의계와 무초시는 숙질이다. 또 진용광과 양역증은 진사 동방이며, 심외개와 진조, 주이휘는 모두 1817년에 진사가 된 뒤 編修를 역임하였다. 이들은 혈연과 관직으로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성우증은 도주와 진용광을 구심점으로 하여 당시 한림원에 재직하고 있던 청의 문사들과 주로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연경에서의 학문적·정치적 위상과 영향력 및 시문 창수 등을 통해 본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도주와 진용광, 그리고 기타 문사들로 나누어 이들의 교유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성우증과 淸 문사들의 교유 양상

1) 陶澍와의 교유

도주(1778~1839)의 자는 子霖·子雲이고 호는 雲汀·髯樵이며 湖南省 安化 사람이다. 1802년(가경7)에 진사가 되고, 한림원 庶吉士와 編修官·御史 등을 지냈다.道光 연간(1821~)에 山西·四川·福建·安徽省 등지의 布政使와 巡撫를 역임하고, 1830년(道光10) 兩江總督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太子少保가 되었다. 陶淵明의 59세손으로, 『도연명집』의 여러 이본을 교감하여 『陶靖節先生集』과 『印心石屋文集』을 간행하였다. 印心石屋은 그의 당호이다.

도주가 조선 문사와 처음 사귀는 것은 1818년 봄 동지겸사은사 서장관 洪羲瑾과 수행원 權永佐를 유리창에서 만나면서부터이다. 정사 韓致應을 필두로 한 조선 사신들은 1817년 10월 하순 한양을 출발하였으며 다음 해 봄에 도주를 만났다. 당시 한림원에 재직 중이던 도주는 조선 사신들과 시문을 수창하였으며²¹⁾ 國中의 사대부들을 불러 함께 시를 짓고 이를 모아 『談瀛前後錄』을 편찬하였다.²²⁾ 흥희근과 권영좌가 귀국한 뒤에도 권영좌가 활동하던 조선의 梅社 동인들과 적극적인 서신 교유가 이루어졌다.²³⁾ 이어 도주는 다음 해 봄 진하겸동지사은사의 정사인 鄭晩錫과

21) 陶澍, 『陶文毅公全集』 권60, 「次韻答高麗韓尙書致應見寄」; 「疊前植字韻答權晶山」; 「次高麗詩人韓西園永元用拙集韻見寄」 참조.

22) 徐世昌, 『淸詩匯』 권200, 「屬國」, “晶山與洪駱臯以嘉慶戊寅奉使入都, 時陶文毅方在詞館, 相遇於琉璃廠, 遂與交互相酬唱, 並以題印心石屋之作, 徵其國中士大夫題詠, 輯其詩爲談瀛前後錄.”

23) 梅社 同人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권영좌를 비롯하여 韓永元·韓永獻·李晩用·南尙教·李明五 등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주와 매사 문인들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한영규,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19세기 조선의 한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282~285쪽 참조.

그의 동생 鄭五錫, 서장관 李潞, 그리고 성우증을 만난다.

先生書劔老幽州,	선생의 책과 칼이 유주에서 늙어가니
籬種黃花度幾秋.	울타리에 심은 국화 거의 몇 해런가
眉宇靑看衡岳聳,	미간 사이로 높이 솟은 형악 푸르게 보이고
筆端橫寫洞庭流.	붓 끝에서 동정호 물결 세차게 그려지네
雲開今古文公蹟,	고금에 건힌 구름 文公의 자취오
天塹東南子美樓.	동남으로 터진 하늘 子美의 누각이네
也識休官歸去日,	응당 벼슬 그만두고 돌아간 날
潯陽烟月有孤舟.	심양의 연월이 외로운 배에 있음을 알겠네

萬里長沙問故鄉,	만 리 고향 장사에 대해 묻고
東方有士對書床.	동방의 선비 책상을 마주했네
賈生命薄風雲會,	가이는 풍운을 만나는 운명 박하고
屈子心懸日月光.	굴원은 일월을 향해 마음 걸어두었네
騷客千年吟鵬賦,	시인은 천년동안 鵬賦를 읊고
行人一體奠椒漿.	행인은 일체가 되어 제주를 올리네
少孫補史多踈漏,	褚少孫이 보충한 역사에도 소루함 많으니
誰識柑園井水香.	누가 감귤밭 우물물의 향기로움을 알리오 ²⁴⁾

성우증이 도주에게 쓴 「급사 운정 도주에게 드리다(贈陶給事雲汀澍)」란 제목의 7언 율시 2수이다. 각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1수의 首聯은 도주가 고향을 떠나 연경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음을 말한 것이다. 頷聯은 남으로 衡岳과 북으로 洞庭湖를 끼고 있는 도주의 고향 호남성을 원용하여 도주의 기상과 필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頸聯에서 文公은 韓愈를, 子

24) 성우증이 도주를 비롯한 청의 문사들에게 보낸 시는 모두 『蒼山集』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로는 출전 표기를 생략한다.

美는 杜甫를 말한다. 한유가 형악에 올라가 기도를 한 덕분에 운무가 걷혀 날이 맑끔히 개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또 두보의 시 「악양루에 올라서(登岳陽樓)」에 “옛 말에 들은 동정호, 오늘 악양루에 오르니. 오와 초는 동남으로 갈리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 있구나[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라는 구절이 있다. 대문장가인 한유와 두보의 자취에 호남성 출신 도주의 기상과 문필을 견준 것이다. 尾聯은 도연명이 지절을 지키며 潯陽에서 일생을 마친 것처럼 도주 역시 언젠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심양은 연경에서 호남성으로 가는 길에 자리하고 있다.

2수에서 성우증은 도주를 만나 고향 長沙에 대해 묻고는 그 곳 출신으로 유명한 賈誼와 屈原의 행적을 들어 은연중에 도주의 충성심을 부각시켰다. 가의는 스무 살에 漢 文帝의 신임을 얻어 太中大夫에 발탁되었다가 참소를 받아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된 뒤 서른셋에 요절하였다. 굴원은 楚나라 賢臣으로 그 또한 소인들의 참소를 받아 쫓겨났다가 汨羅水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장사의 풍토가 습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한 가의는 「鵬賦」를 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고, 사람들은 5월 5일에 죽은 굴원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제사지냈다. 경륜은 이러한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미련에서 褚少孫은 司馬遷의 『史記』 중 禮·樂·龜策을 보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저소손이 『사기』를 보충했다고 하나 아직도 성글고 누락된 곳이 많다.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우물물은 향기롭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이처럼 도주 역시 뛰어난 역량 지니고 있음에도 알아주는 이가 적은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요컨대 첫째 수에서는 형악과 한유의 자취, 동정호와 두보의 누각에 견주어 도주의 높은 기상과 뛰어난 필력을 형상하였고, 둘째 수에서는 가의와 굴원에 비유하여 역량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도주를 묘사하였

다. 도주는 성우증의 이 시에 차운하여 『성진사가 보내온 시에 다시 차운하여 답하다』란 제목의 7언 율시 두 수를 지었다.

誰從煙末望齊州,	안개 끝에서 누구지라며 동쪽을 바라보니
植使來從八月秋.	뗏목 탄 사신이 팔월 가을에 왔네
便溯文津尋寶筏,	문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배 뗏목 찾더니
居然滄海障橫流.	어느새 창해에서 거센 물결 막았네
三山碧月蛟嘘島,	삼산의 푸른 달 교룡이 섬에서 울고
百尺紅霞蜃結樓.	백 척 붉은 놀 신기루가 맺은 것이네
珍重移情同此曲,	진중하게 정을 옮김이 이 곡과 같아
成連海上有歸舟.	성련의 해상금 돌아가는 배에 있으리

風雅還徵屈宋鄉,	풍아를 다시 屈宋의 고장에서 징험하니
筆談佳日共匡牀.	필담 나눈 아름다운 날 평상을 함께 했지
一堂喜盡東南美,	자리에 모인 사람들 동남 땅 인재를 기뻐하고
五色同瞻日月光.	일월처럼 빛나는 문장 솜씨를 함께 바라보았네
嶽麓有茶皆玉露,	악록의 차는 모두 옥이슬이요
巴陵無酒不瓊漿.	파릉의 술은 전부 맑은 약수라네
湖湘故事君能說,	호상의 고사를 그대가 말하니
欲贈芙蓉一段香.	한 심지 부용향을 드리고 싶네 ²⁵⁾

1수의 수련은 음력 8월 즉 10월에 여행 온 성우증을 비유한 것이며, 함련은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기세를 묘사하였다. 경련의 의미는 선명하지 않는데, 三과 百의 갖춘 숫자와 碧과 紅의 색채 대비, 蛟와 蜃의 신이 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시어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

25) 陶澍, 『陶文毅公全集』 권60, 『次韻再答成進士見贈』.

한 것으로 보인다. 미련은 伯牙 고사²⁶⁾를 차용한 것이다. 자신과 성우증의 관계를 백아와 成連子에게 비유하여, 자신 또한 성우증으로 인해 정을 옮겨 바꾸게 되었다는 의미로 성우증을 높이 평가하였다.

2수는 고향으로 돌아간 도주가 성우증의 시를 받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련에서 ‘동남 땅 인재’ ‘일월처럼 빛난다’고 묘사하여 성우증의 시재를 극찬하였다. 미련에서 湖湘의 고사란, 朱子가 湘州에 가서 張栻을 만나 몇 달 동안 학문을 토의하고 같이 南嶽의 衡山에 오른 사실을 말한다. 뜻 맞는 사람들이 학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성우증이 호상 고사를 들어 자신과의 만남을 주자와 장식에 견주니, 도주 또한 부용향 한 심지를 주고 싶다며 마음을 표현하였다. 조선에서 온 젊은 문사의 시재를 아끼고 의기가 투합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시다. 이어 성우증이 귀국한 후 도주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집사께서 처음에는 빈객의 禮로 대우하시고 마지막에는 詩友로 칭찬해주셨으니 부끄럽습니다. 비록 사사로운 마음의 행운을 잡긴 했지만 마치 용문에 올라 이군을 모시는 듯하였습니다. 한스러운 것은 유리창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이루지 못했는데 사신길 다녀오는 기약에 물러서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여도 따르지 못하니 탄식이 가슴에 가득하여 세 번 『停雲』 시를 반복할 뿐입니다. 귀국해 집에서 손을 씻고 『印心石屋集』을 읽는데, 『周髻 두 군과 이별하며』라는 시가 있으니 이리하였습니다. “옛 사람 의기를 중히 여기지만, 늘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네. 간담이 한 번 서로 비추었으니, 만 리에서 보는 듯하였네. 만일 꼭 그렇지

26) 伯牙는 成連子에게 거문고를 배웠는데, 성련자는 백아가 거문고 곡조를 다 배우자 정을 옮겨 바꾸어야겠다[移情]고 한 뒤, 그를 데리고 바다 섬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배를 타고 건너편 섬으로 가버렸다. 백아가 10여 일을 기다려도 성련자는 오지 않고 숲에서 물새만 울부짖었다. 그는 마침내 감동하여 “이것이 우리 스승이 나의 정을 바꾸는 것이다.”라 하고 거문고를 탔다는 고사가 전한다.

않다면, 얼굴을 마주해도 마음이 멀어지리라.” 이에 집사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모퉁이가 비록 궁벽지고 천하가 넓다 하더라도 저와 집사는 ‘아침과 저녁 사이로 만나는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불가한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흰 눈이 떨어지고 찬 기운이 잔뜩 엉겨 붙어 있는데 대감의 기후는 萬重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바, 周小石과 王平舫, 黃翰林은 모두 잘 계시는지요? 늘상 그리우니 실로 마음에서 보내기가 어렵군요. 茗山이라 써 주신 편액은 이미 판각해 두었는데 사중의 여러 벗들이 집사의 글씨를 얻어 天球와 큰 구슬의 보배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紙本을 부쳐 드리니, 글씨를 쓰는 여가에 붓 휘두르는 것을 수고롭다 여기지 않으시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종이면이 얇고 졸렬하여 팔 힘을 쓰시기에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²⁷⁾

성우증은 진정한 시 벗으로 자신을 대우해 준 도주의 후의에 감사하였다. 李膺은 後漢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의 영접을 받기만 해도 ‘유문에 올랐다 [登龍門]’고 자랑할 정도로 명망이 높다. 그가 郭泰를 만나 師友의 예로 대접하자 곽태의 명성이 京師를 진동했다고 한다. 마치 이응을 만난 곽태 처럼, 자신 역시 도주를 만나 龍門에 올랐다고 할 만큼 그와의 만남으로 인한 벽찬 감동을 오롯이 표출하였다. 그런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자 아쉬움과 그리움이 커져만 갔다. 이에 『停雲』 시를 반

27) 成祐曾, 『茗山集』 권6, 『與陶給事澍書』, “執事始以客禮待之, 未乃以詩友詔之慙愧, 雖擊私心之幸, 有若登龍門而御李君矣. 所可恨者, 廠肆之約未遂, 回槎之期莫退, 遽爾分張. 願言不從, 歎息彌襟, 三復停雲之詩而已. 及歸, 弊廬盡讀印心石屋之集, 有別周翟二君詩曰: ‘古人重意氣, 不在常遺隨. 肝膽一相照, 萬里如見之. 如其不必然, 對面隔心脾.’ 乃知執事愛人之心, 不以遠近有殊, 則海陬雖僻, 天下雖廣, 僕與執事, 謂之朝暮遇, 庸詎知不爲不可也? 素雪云零, 寒氣蟲屨, 伏惟台候萬重, 令卽周小石及王平舫·黃翰林, 俱佳迪否? 日常憧憧, 實難遣于懷也. 茗山匾額, 已付剗劖, 社中諸友, 欲得執事之筆, 以爲天球宏璧之珍. 故紙本付呈, 臨池之暇, 不以揮灑爲勞, 則幸甚. 然楮面薄劣, 恐不足試腕也. 餘不備.”

복하여 읊조릴 뿐이다. 이 시는 도연명이 친구를 생각하며 지은 것으로, 도주가 도연명의 후손임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 그리고 함께 교류했던 王可權과 周貽樸, 黃翰林의 안부를 묻고는 도주의 글씨를 부탁하였다.

도주는 성우증에게 자신의 문집 『印心石屋集』과 茗山이란 편액 글씨를 선물로 주었다. 이는 성우증의 지인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우증은 지인들의 요청을 받아 도주에게 글씨를 부탁하기에 이른다. 도주도 성우증에게 「고려 진사 명산 성우증이 『인심석옥집』에 쓴 시에 차운하여 답하다.²⁸⁾」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 앞 4구에서는 시 잘 짓는 조선 선비를 만나 기쁘다며 성우증의 시재를 칭찬하였고, 뒤 4구에서는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그렸다. 성해응은 「도주의 『운정집』 뒤에 쓰다」에서 도주에 대한 간략하되 적실한 소개와 함께 조카 성우증과 도주의 친분을 확인시켜 주었다.²⁹⁾ 그리고 그 역시 성우증을 통해 도주의 문집을 읽은 사실을 밝혔다.

2) 陳用光과의 교류

진용광(1768~1835)의 자는 碩士·實思이고 江西省 新城 사람이다. 1801년(가경6)에 진사가 되고 편수관을 거쳐 禮部左侍郎·提督福建·浙江學政 등을 역임하였다. 姚鼐와 魯仕驥의 제자로서 學行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문집으로 『太乙舟文集』 등이 전한다. 다음은 성우증이 쓴 「어사 석사 진용광에게 드리다(贈陳御史石士用光)」이다.

28) 陶澍, 『陶文毅公全集』 권60, 「次韻答高麗進士成茗山祐曾題印心石屋集」. “湖海元龍意氣豪, 平生才力薄風騷. 喜逢佳士嫻聲韻, 能識公卿豈節旄. 把盞茶烹初雪冷, 題箋花拂五雲高. 他時翦燭尋良晤, 夢隔三山碧水濤.”

29) 成海應, 『研經齋全集』 속집 책11, 「題陶澍雲汀集後」. “從子祐曾, 嘗遊燕, 與陶澍熟, 澍淵明五十九世孫, 居在江西, 以詩名, 學王漁洋者, 而雲汀其號也.”

人得公詩亦足豪,	공의 시를 얻은 이 역시 호걸이니
登瀛十載姓名高.	영주에 올라 십년간 명성이 높았네
仁民世德憂平糶,	백성을 사랑한 世德은 平糶을 근심하고
敬業師門讀選騷.	師門에서 학업을 공경히 하며 選騷를 읽었네
海內文章霜挾筆,	해내의 문장이라 서릿발 기상 어린 붓을 끼고
江西日月雪盈毛.	江西의 세월 머리털에 눈이 가득하네
知應萬里心相照,	응당 만 리에서 마음 서로 비춤을 알 것이니
一望停雲夢想勞.	한 번 멈춰 선 구름 바라보고 꿈에서 생각하느라 수 고로우리

시의 수련에서는 진용광의 학자적 역량과 높은 명성을 말하고 그와 시를 주고받은 자신 또한 호걸임을 은근하게 드러내었다. ‘영주에 오른대[登瀛]’는 것은 선비가 영예를 얻은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함련에서는 곡식 값이 쌀 때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가 비쌀 때 싸게 팔아 民生을 안정 시키고, 『文選』과 『離騷』를 읽은 사실을 통해 진용광의 관리자로서의 면모와 문인적 역량을 부각시켰다. 경련에서 진용광의 ‘海內文章’을 높이 평가하고 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으며, 미련에서는 조선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리움 때문에 잠자리가 편안치 않을 것이라 하였다. 앞 6구에서는 진용광의 인품과 문장을 고평하고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별의 아쉬움을 표출한 시다. 다음 시는 귀국한 후 지은 『시어사 진용광에게 부치다(寄陳侍御用光)』이다.

憶曾逢別筆譚筵,	생각하노니 만나고 헤어질 때 필담하던 자리
似向床書見古賢.	책상의 책 향하니 옛 현인을 보는 듯하네
萬里城雲神獨往,	만리 성 구름에 정신만 홀로 떠나고
百花亭月夢長圓.	온갖 꽃 핀 정자의 달 꿈에선 항상 둥글다네

文章中國推先進, 문장 중국에서 선배로 추앙되는데
 意氣東溟許少年. 의기로운 동쪽 바다 소년을 허여하였네
 不待題封知信息, 편지로 소식 알기를 기다리지 않고
 菁莪閑訂紫陽篇. 청아재에서 한가로이 자양편을 정정하네

연경에서 진용광을 만나 교유한 뒤 귀국하여 그에게 선물 받은 책을 읽노라니 마치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반가우면서도 애절하다. 그러나 만약 리나 떨어져 있어 볼 수 없으니 정신이나마 구름을 따라 가 진용광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경련에서는 중국에서 뛰어난 문장가로 추앙받는 진용광에게 인정받은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미련은 세주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 “주자가 詩傳을 모은 뒤로 毛鄭이 다 사라졌는데 유독 『子衿』편의 학교와 『菁莪』편의 낙육은 백록동에서 지었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 많다. 금년 3월에 문도들이 제재를 모아 시를 지었으며, 金峴의 연못 위에 정자를 짓고 ‘菁莪齋’라 이름 하였다. 4월에 진어사가 『白鹿洞志』 6권을 보내오니 일이 마치 감응함이 있는 듯하여 말구에서 언급한 것이다.”³⁰⁾

연행에서 돌아온 1819년 4월에 진용광은 성우증에게 『백록동지』 6권을 선물로 보냈다. 백록동은 江西省 廬山 기슭에 있던 서원으로, 9세기 초 당나라 李渤이 창건하여 북송 초에는 4대 서원의 하나로 꼽혔다. 주자가 학문을 가르친 곳으로도 유명하다. 『백록동지』는 백록동서원에 대한 기록을 모아 놓은 책이다. 성우증은 집 근처에 菁莪齋를 짓고 이 곳에서 문인들과 시를 짓곤 했는데, 때마침 진용광이 『백록동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에 감동하여 특기하였다. 菁

30) 成祐曾, 『茗山集』 권1, 「寄陳侍御用光」. “朱子集詩傳之後, 毛鄭俱廢, 獨子衿之學校, 菁莪之樂育, 以白麓洞賦, 故多引用者. 今年三月, 門徒鳩材作詩, 亭於金峴塘上, 名之曰: ‘菁莪齋’ 四月陳御史送白鹿洞志六卷, 事若有感應者, 故未旬及之.”

莪는 『詩經』『小雅』〈菁菁者莪〉의 준말로 인재 기르는 것을 읊은 시이다. 이에 영향 받아 재실 이름을 ‘청아재’라 명명한 것이다. 이별한 후 늘 그리워하면서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용광이 이처럼 시와 글씨, 책 등을 종종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우증이 진용광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는 바닷가 한 모퉁이에 거주하는데 텅 빈 골짜기에는 쑥 명아주가 달아나도 기이할 것이 없습니다. 집사를 만난 뒤로부터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어 우울합니다. 매양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새벽이면 더욱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문장이 정대하고 덕의가 가득 찼으니 다만 절로 정신적 교류일 뿐입니다. 한 해가 이제 막 저물어 가는데 눈썹이 하늘에 가득하여 황홀하게 얼굴에 빛나는 호동의 광경입니다. 엮으려 생각건대 대감의 기후는 만길하신지, 양개평도 평안히 잘 지내는지, 장차죽은 부임한 뒤 서신으로 소식을 알리는지요? 『四子書纂疏』는 우리나라에서 활자로 인쇄를 시작하고 인쇄가 끝나면 버려서 우선 구득할 길이 없으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先集의 권질이 매우 많아 가려 뽑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수를 드리니 자세하게 비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책에 癖이 있는 社友들이 집사의 글씨를 보고 미전이 돌을 움켜잡은 마음이 있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를 올리니 집사께서 만약 완공이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이 해 주신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만일 자중하여 그림 그리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신다면 교류하는 사이에 글을 부탁하는 것이 또한 어찌 방해가 되겠습니까? 雪浪石歌는 줄렬함을 잊고 전별에 부친 것이며 돌술의 본말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빠뜨려 둡니다.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 선생이 저에게 주신 열 폭짜리 글은 진중하여 진나라 성과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명산의 책 상자 속에 신이한 빛이 와서 빛나니 티끌 먼지는 달아나 감히 가까이 하지 않았고 벌레와 쥐는 놀라서 혼백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 생애에서 설랑석처럼 견고하여

교분이 천리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³¹⁾

성우증은 연행에서 돌아와 진용광과의 교유를 회고하며 문장이 바르고 덕의가 충만한 神交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편지에서는 진용광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뒤 청에서 교유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衚衕의 거리를 추억한다. 이어 진용광이 부탁한 『四子書纂疏』 즉 『四書纂疏』를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알려주었다. 그리고 先祖의 문집을 뽑아 보내며 자세한 비평을 부탁하였는데, 누구의 것을 말하는지 자세하지 않다. 또 친구들의 요청으로 진용광에게 글씨를 부탁하였다. 돌솔의 본말이란 蘇軾의 돌솔인 雪浪石이 水村 尤蔭의 집에 남아있었는데 우음이 晝摹하여 옹방강에게 부쳤으며, 무쇠나 구리로 만든 솔보다 훨씬 좋다고 한다. 雪浪石歌는 이러한 사정을 시로 읊은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용광이 성우증에게 열 폭에 달하는 글을 보내왔으며, 성우증은 이를 진나라 성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여 특별한 애착을 나타낸 것이다. 두 사람의 교분이 설랑석처럼 견고하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기원하였다. 이 글을 통해 성우증이 연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진정을 토로하며 지속적으로 교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우증의 말처럼 이들은 神交를 이루었던 것이다.

31) 成祐曾, 『茗山集』 권6, 『與陳御史用光書』, “僕海左一隅所居, 空谷無異蓬藿之逃, 自見執事之後, 鬱鬱無可與語之人. 每風朝雨晨, 益不勝耿耿之私, 文章之正大, 德意之粹盎, 祇自神交而已. 歲聿云暮, 雪華滿天, 愜是爛面, 衚衕光景. 伏惟台候萬吉, 楊介坪亦平善, 蔣次竹莅任之後, 有鱗羽之相聞否. 四子書纂疏, 敝邦以活字開印, 印訖便毀, 姑無購得之路, 慙愧極矣. 先集卷秩浩大, 抄選不甚容易, 故茲呈若干首, 詳加批評, 是所望也. 社友之癖於書者, 見執事所揮灑, 莫不有米顛攫石之心, 故紙本付上. 執事若如阮公之彈琴, 則何幸如之? 如其自珍以襪材爲勞, 則囑書於交遊之間, 亦何妨也? 雪浪石歌, 忘拙奉塵, 而石銚本末 未之聞, 故闕之耳. 餘不備. …… 先生贈我十幅箋, 珍重不許秦城易, 從此茗山篋中, 似有神光來奕奕, 塵埃辟易不敢近, 蟲鼠惶駭失其魄. 但願此生堅如雪浪石, 交契不以千里隔.”

한편 성우증은 진용광과 漢宋의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였다.³²⁾ 이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언급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자세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학문 경향을 통해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우증의 학문적 지향점이 드러난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영락대전』이 세상에 외로이 유행하지만 동유들은 한학이 어떠한 것 인지를 알지 못하며, 또 명칭 제유의 학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대저 경술로서 뒤에 나온 것이 더욱 교묘하되 근원을 찾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소를 섭렵하고자 하였으나 시골에 거처하여 볼 도리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³³⁾

② (공영달의) 詩疏에서 ‘왕래하는 청승을 울타리 바깥에 머물게 하여 궁실 안에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역』에서 말하는 소인이 바깥으로 나감이다. 소인은 바깥에 있게 해야 하며 그를 안에서 부려서는 안 된다. 안에서 부린다면 그는 끝내 사국을 어지럽힐 것이다…… 고인이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이와 같지만 그 말은 완곡하게 하였다. 고급의 전례로는 시를 지은 사람의 본의를 알지 못하므로 내가 특별히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 하나의 단서만 들어도 시소는 폐할 수 없는 것이다.³⁴⁾

32) 成祐會, 『茗山集』, 『自序』, “嘗遊燕都, 與陳御史用光, 論漢宋之學.”; 成泰永, 『昌寧世譜』, 『祖考茗山公行蹟』, “戊寅從鄭相公晚錫赴燕, 與燕都文士, 論漢宋之學.”

33) 成祐會, 『茗山集』 권6, 『上趙判書雲石書』, “自永樂大典孤行於世東儒, 不知漢學之爲何如, 又不知明清諸儒之說爲何如, 大抵經術後出者愈巧, 然不探根源, 是所謂本之則亡者也. 竊欲涉獵註疏, 而鄉居無借觀之道奈何.”

34) 成祐會, 『茗山集』 권8, 『讀詩疏』, “疏曰: ‘往來青蠅, 當止於藩籬之上, 無令在宮室之內.’ 此實易所謂外小人也. 小人可外, 不可使之內也. 使之內, 則其終也, 亂四國矣……古人惡惡之心如此, 而婉其辭也. 古今之詮解者, 不識詩人之本意, 故余特表而出之, 舉此一端, 詩疏不可廢也.”

①은 趙寅永(1782~1850)에게 쓴 편지이다. 조인영은 漢學의 성과에 관심이 많아 淇水의 지리 고증을 놓고 성해응과 서신을 교환하기도 하였다.³⁵⁾ 성해응은 연행하는 조인영을 전송하면서 한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한 인물이다.³⁶⁾ 성우증 역시 한학을 모르는 조선 선비를 비판하고 註疏를 섭렵하고자 하였다.

②는 성우증의 학문적 태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그는 『詩經』 「小雅」 <青蠅>편을 읽다가 시에 대한 주자의 주에 의문을 품었는데 孔穎達의 疏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깨우치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당시 송학의 天人性命에 경도되어 있던 조선의 학문풍토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한학의 名物度數에 바탕을 둔 공영달의 詩疏가 폐해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표명하였다.

祁雋藻(1793~1866)는 친구 진용광의 문집에 서문을 써 주었는데 “漢儒를 중주로 삼되 程朱를 배척하지 않은 것은 覃溪 스승의 가법이고, 정밀히 연구하고 고증하여 문장으로 은택을 끼치는 것은 姬傳 스승의 가법을 이어받은 것이다.”³⁷⁾라고 하였다. 覃溪는 翁方綱(1733~1818)의 호이다. 그의 자는 正三·忠敘이고, 또 다른 호는 蘇齋이며, 북경 大興 사람이다. 1752년(건륭17)에 진사가 되고 編修, 廣東·江西·山東 學政 및 內閣 學士를 역임했다. 漢學을 주종으로 하고 實事求是의 학을 중히 여겼으며 아울러 宋學을 존중하고 程朱를 받들어 漢宋 兩學 折衷의 태도를 취하였다.³⁸⁾ 姬傳은 姚鼐(1731~1815)의 자이고, 호는 惜抱先生이며, 안휘

35)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13, 「答趙義卿(雲石)書」 참조.

36)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13, 「送趙義卿(雲石)遊燕序」. “苟能合漢學宋學而俱操其要, 以及乎博文約禮之訓, 則學於是乎優如矣.” 성해응의 漢宋兼掌의 학문자세에 대해서는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91~106쪽 참조.

37) 祁雋藻, 『太乙舟文集』, 「太乙舟文集序」. “力宗漢儒, 不背程朱 覃溪師之家法也. 研精攷訂, 澤以文章, 姬傳師之家法也.”

성 桐城 사람이다. 1763년(건륭28) 진사가 된 후 刑部郎中·四庫全書纂修官 등을 역임하였다. 종래 송학 중심의 이론에 한학의 방법을 도입하고 桐城派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진용광이 스승으로 받든 옹방강과 요내는 한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한 인물들이다. 옹방강은 漢儒를 중주로 삼았고, 요내는 研精과 攷訂 등 학문 연구에 있어 고증적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큰 영향을 받은 진용광 역시 한학의 가치를 모색하고 지향했을 것이다. 따라서 성우증과 진용광이 한송의 학문에 대해 논의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학문 경향을 살펴볼 때 이들의 지향점을 짐작할 수 있다.

3) 기타 문사들과의 교류

성우증은 이 외에도 蔣第·葉志詵·周達·巫宜稷에게 시를 보내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그 중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섭지선에게 쓴 「자오정을 읊어 동경 섭지선에게 주다(咏子午井贈葉東卿志詵)」이다.

離中有坎坎中離,	離 안에 坎이 있고 감 안에 리 있으니
開關之先井已滋.	개벽하기 전 우물이 이미 불어났네
鉛汞流通丹藥竈,	연홍은 단약 만드는 부엌으로 흘러 통하고
機衡旋斡黑環儀.	선기옥형은 검은 고리 의표를 두루 도네
谷深西蜀名徒藉,	골짜기 깊은 서촉 이름을 다만 빌려왔으며
潮上東溟候較遲.	조수가 동쪽 바다 절후는 더디 간다

38) 후지즈카 지카시 저·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의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16~117쪽.

梧月未傾花日正, 가을 달 아직 기울지 않고 꽃은 매일 아름다우니
主人閑讀水經時. 주인이 한가로이 수경을 읽을 때라네

섭지선(1779~1863)의 자는 東卿이고, 호는 遂翁·淡翁이며, 湖北省 漢陽 사람이다. 1804년(가정9) 한림원에 들어와 國子監典簿와 升兵部武選司郎中 등을 역임하였다. 옹방강의 수제자로 금석문자학에 뛰어났으며, 조선 문사 중 金正禧 등과 친하였다.

子午井은 子午泉으로, 섭지선의 집에 있는 우물 이름이다. 이에 대해서 19세기 문인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³⁹⁾ 離와 坎은 八卦의 하나로, 離는 火가 되고 坎은 水가 된다. 水火는 相克하니, 離는 흠어지고 坎은 평탄하지 않다. 이러한 離와 坎의 속성으로 천지가 개벽하기 전 자오천이 형성된 것이다. 주역의 괘를 끌어와 자오천의 신이함을 설명하였다. 子는 하늘이 물을 내는 시각에 해당하는 地支이고, 子와 午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 오도 역시 자와 같다. 함련에서는 도가의 단약과 고대 천체 관측 기구인 선기옥형을 원용하여 자오천의 독특한 물맛과 신비로움을 배가시켰다. 미련에서는 가을달이 둥글게 떠 있고 꽃이 아름답게 피워 흥취가 일어날 때 자오천 주인 섭지선은 한가로이 『水經注』를 읽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중국 각지의 하천과 水系를 기록한 지리서로서 자오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루 중에서 오직 子初, 午正 두 시간만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 매우 달고 시원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짠 맛이 난다는 신이한 자오천을 도가와 천체의 이미지와 연동시켜 환상적이고 신이한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섭지선이 자오천의

39) 李裕元, 『林下筆記』제33권, 『華東玉糝編』, <子午泉>. “紀文達昫舊宅, 今屬葉東卿, 有所謂子午泉, 食味鹹, 一日十二時中, 惟子初午正二時, 清脈湧出, 甘冽異常, 過時焉則依舊鹹也.”

주인임을 옆두에 두고 착상하여 쓴 시이다. 다음은 5언 고시 『우지 무의 계에게 주다(贈巫雨池宜稷)』이다.

見君多磊落,	그대를 보니 우뚝 뛰어나
筆疏問其先.	필담으로 선조를 묻노라
可惜秦火後,	애석하구나, 秦火 이후로
書闕咸父篇.	서경에서 咸父篇 빠진 것
周官名偶同,	周官은 이름이 우연히 같고
筮法非所賢.	筮法은 어진 것이 아니라네
仁壽固常理,	仁和 壽는 본디 떳떳한 이치로
野人傳之仙.	野人이 신선에게 전하였네
炳煥兩賢蹟,	빛나고 빛난 두 현인의 자취
幸賴君爽傳.	다행히 君爽에 의지해 전해졌네
孔門七十徒,	공문 칠십도에
馬期亦併肩.	무마기도 어깨를 나란히 하였지
華胄惜中微,	빛나던 가문 애석하게 중도에 쇠미해지니
力田心不遷.	힘써 밭갈면서 마음이 옮겨가지 않았네
要近賢人居,	현인의 거처 가까운 곳을 구하였으니
漳州有山川.	漳州에는 산천이 있다지
紫陽嘉惠意,	紫陽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뜻
遺經刊木天.	遺經을 한림원에서 간행하였네
至今武夷曲,	지금 武夷 골짜기에서
榻歌聞扣舷.	벉진 두드리며 탐가를 듣노라
君是靑衿士,	그대는 유생으로
淹博從妙年.	어려서부터 해박했지
萬里携仲容,	만리길 중용을 데리고
壯心遊薊燕.	굳센 마음으로 연경을 노니네
謂我箕邦人,	나를 기자 나라 사람이라 하여

半日共周旋. 만나절동안 함께 주선하였네
 殷俗宜尙忠, 은나라 풍속 충을 숭상하는데
 正學戎染禪. 정학이 크게 선학에 물들었네
 吾道貴贈言, 吾道는 말해 주는 걸 좋아하니
 勿爲世儒牽. 世儒에 견인되지 말라

무의계(1790~?)의 자는 紱齋·學修·蘭亭이고, 호는 雨池이며, 福建省 永定(永寧) 사람이다. 1817년(가경22) 진사가 되어 翰林院 庶吉士 및 禮部主事·浙江御史·山西道御史·上海兵備道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성우증을 전별하면서 “사물에 해박한 참군자이며 경에 통달한 대유로다.(博物眞君子, 通經卽大儒)”라는 시를 지어 준 바 있다.⁴⁰⁾ 성우증의 박학하고 경전에 통달한 면모를 특기한 것이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1~12구로, 무의계의 학문적 역량이 가학에 근원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秦始皇의 焚書로 인해 많은 서적이 불에 탔으며, 『書經』도 그 중 하나이다. 진나라 博士였던 伏生이 난을 피해 자기 집 벽 속에 감추어두었는데 훗날 꺼내보니 29편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今文尙書이다. 또 漢나라 景帝때 魯의 恭王이 공자가 살던 옛 집을 헐다가 벽 속에서 古文尙書를 발견하였다. 이는 金文尙書보다 16편이 더 많다. 「咸乂」는 『尙書』의 편명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실되었다고 한다. 5~8구는 무의계의 선조인 巫咸과 巫賢의 고사를 들어 쓴 것이다. 무함은 殷나라 中宗의 어진 신하로 王家를 다스려 공을 세웠으며, 「함예」편을 지어 왕을 훈계한 장본인이다. 무현은 무함의 아들로 역시 왕인 祖乙을 보좌한 賢臣이다. 9~10구는 무함과 무현의 자취가 『서경』 「君奭」편에 수록되어 전해진 것을 말한다. 11~12구는 무

40) 成祐曾, 『茗山集』, 「自序」.

의계의 선조 중 巫馬期の 행적을 고평하였다. 무마기는 공자의 제자로 별을 이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즉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善政을 펼친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단락은 13~20구로, 이처럼 빛나던 가문이 중간에 쇠락해졌지만 농사짓고 학문을 닦으면서 결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찍이 주자는 福建省 漳州의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그곳의 登高山에 있는 臨漳臺에 서원을 세워 공자를 위시한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다. 또 여기에 武夷山도 있는데 그곳을 흐르는 시내 아홉 굽이를 노래하였으니, 이것이 「武夷九曲」이다. 그러므로 주자의 고장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 뜻을 받들어 학문을 닦고 武夷歌를 부르며 은거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21~30구로, 무의계의 해박한 식견에 대하여 말한 뒤 연경에서 자신과 교유하게 된 정황을 알려준다. 성우증이 교유한 청의 문사 중 무의계는 무초시와 함께 유일하게 성우증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禪學에 물들지 말고 正學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였다. 성우증은 무인연행을 동행한 정사 정만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老莊의 讖緯說이 성하여 儒者들이 경도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바 있다.⁴¹⁾ 선학은 노장의 참위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3구의 仲容은 쯤나라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阮咸인데, 阮籍의 조카로서 재주가 뛰어나 완씨 집안의 중심인물로 칭찬받았다. 여기서는 무의계의 조카 巫初試를 말하는 것으로, 무의계가 조카와 함께 연경에 온 것을 의미한다. 무의계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가 잘 표출된 시다.

41) 成祐曾, 『茗山集』 권6, 「上鄭尙書書」. “古聖人教人處世之道保身之術, 與論孟等書何異? 特寓之卜筮故, 其辭不得不假象, 假象則不得不靈怪. 後之學者, 遂謂玄微莫測, 老莊讖緯之說勝, 而吾儒心學爲彼所奪, 豈不惜哉!”

다음은 연행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1820년(순조20)에 쓴 「국인 주달에게 부치다(寄周菊人達)」이다. 제목 옆에 ‘염계의 후손. 경진년 봄 사행시 주련과 부채를 보내오다(濂溪後孫. 庚辰春使行, 送柱聯及扇)’라고 세주가 부기되어 주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를 쓰게 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詩禮傳聞繼大儒,	詩禮를 전해 들어 大儒를 이었고
匡廬泉石不應殊.	廬山の 泉石 응당 다르지 않네
紅蓮泛水香無絕,	물에 떠 있는 붉은 연꽃 향기 끊이지 않고
佳菊凌霜節又孤.	서리 견딘 아름다운 국화의 절개가 또 외롭구나
地僻海東愁楚越,	궁벽진 땅 바다 동쪽에 멀리 떨어진 것 시름겹지만
書同天下慕程朱.	천하의 문명 같으니 정주를 사모한다네
深知扇面春風盡,	부채에 봄바람 다한 것을 깊이 아나
便是公家太極圖.	이것이 바로 공의 집안 태극도라네

주달(?~?)의 자는 吉人이고, 호는 菊人이며, 江蘇省 松江 사람으로 송나라 대학자 周濂溪의 28세손이다. 1810년(가경15)에 舉人이 된 후 다음해 會試에 응시하고자 연경에 올라와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옹방강의 제자가 되었다. 연경에 온 많은 조선 사신들과 교유하였으며, 특히 옹방강을 통해 알게 된 金正喜와는 친교를 맺게 된다.⁴²⁾ 그러나 그는 몇 차례 계속해서 과거에 낙방하게 되자 道光 초 고향으로 돌아갔다. 옹방강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달에게 글을 지어 주었으며,⁴³⁾ 십지선은 1834년(도광14) 초 김정희에게 보낸 서찰에서 주달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⁴⁴⁾ 이를 통해 주달은 연경에 머물던 말엽 성우증을

42) 周達과 김정희의 교유에 대해서는, 후지츠카 지카시 저·박희영 역(1994), 위의 책, 282~289쪽 참조.

43) 翁方綱, 『復初齋文集』 권13, 「送周鞠人南歸序」 참조.

만났고 그로부터 얼마 뒤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의 수련에서는 주렴계의 학문을 이어 받아 주달의 자질이 뛰어남을 말하였다. 함련은 주렴계가 특히 연꽃을 사랑하여 『愛蓮說』을 지은 것과 국화를 꽃 중의 은일이라 표현한 것을 미루어 쓴 것이다. 연꽃과 국화를 사랑한 주렴계의 아취와 절개를 고평하고 그의 후손인 주달을 격려하였다. 경련은 조선으로 돌아온 후 성우증 자신의 심경을 읊은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아쉽긴 하지만 ‘書同天下’이므로 다소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미련은 주달이 부채를 선물로 보내왔기 때문에 쓴 구절로, 太極圖는 주렴계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4. 맺음말: 성우증과 淸 문사들의 교류 의미

19세기 전반기에 주로 활동한 서족 문사 成祐曾(1783~1864)은 1818년(순조18) 동지사행에 정사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하여 연행의 路程과 情懷를 『茗山燕詩錄』과 『北轅日記』에 온축시켰다. 이와 별도로 『茗山集』에는 淸의 문사들과 주고받은 시문과 척독이 수록되어 있다. 1818년에는 3차례의 연행이 있었는데, 현재 전하는 연행 관련 기록으로 성우증의 것이 유일한 만큼 자료적 가치가 크다. 성우증 이전으로는 1817년에 崔斗燦의 『乘槎錄』과 『江海乘槎錄』이 전하며, 이후로는 1821년에 李好閔의 『北遊漫錄』이 전한다. 성우증의 연행 기록은 1818년 무인연행의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17년에서 1821년까지 비교적 간극이 길었던 연행록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 洪大容과 朴

44) 후지즈카 지카시 저·후지즈카 아키나오 편, 『淸朝文化東傳の研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國書刊行會, 1975; 후지즈카 지카시 저·박희영 역(1994), 위의 책, 323쪽.

趾源을 이어 李德懋·柳得恭·朴齊家 등이 활발하게 청의 문사들과 교유한 후 1812년에 申緯의 연행 체험과 기록이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 이전 시기만큼 청 문사와의 교유가 활기를 띠지는 못하였다. 1822년 金魯敬의 연행 이후 金明喜와 金正喜 형제 및 李尙迪, 趙秀三 등을 중심으로 朝·淸 문사들의 교유가 다시금 활발해졌다. 따라서 성우증과 청 문사들의 교유는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우증 또한 연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청의 문사를 만나 학문적 교유를 하는 것이었다.

성우증은 무인연행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847년에 연행하는 동생에게 청의 문사 陳用光, 蔣第, 陶澍, 葉志詵, 沈巍皆, 陳肇, 周貽徽, 王可權, 周貽樸, 巫宜稷, 巫初試의 안부를 알아봐줄 것을 부탁하였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周達에게 보낸 시가 보이며, 도주와 진용광에게 黃翰林과 楊懌曾의 안부를 물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이 말하자면 성우증이 연경에서 교유한 청의 문사들인 것이다. 이 중 도주와 주이박, 왕가권, 황한림이 그룹을 형성하였고, 진용광은 양역증, 차제와 친했다. 그런데 왕가권은 도주의 사위이고, 무의계와 무초시는 숙질간이며, 주이휘와 주이박은 인척으로 보인다. 또 진용광과 양역증은 진사 同榜이며, 심외개와 진조, 주이휘는 모두 1817년(가경22)에 진사가 된 뒤 編修를 역임하였다. 즉 이들은 대부분 한림원에 재직하며 도주와 진용광을 중심으로 혈연과 관직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陶澍(1778~1839)는 翰林院 庶吉士·編修官·御史 등을 지냈고 陶淵明의 59세손이다. 성우증은 도주에게 「贈陶給事雲汀澍」 2수를 지어 주었다. 첫째 수에서는 형악과 한유의 자취, 동정호와 두보의 누각에 견주어 도주의 높은 기상과 뛰어난 필력을 형상하였고, 둘째 수에서는 가의와 굴원에 비유하여 역량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도주를 안타까워하였다. 도주가 이 시에 차운하여 「次韻再答成進士見贈」 2수를 지었으니, 1

수에서는 조선에서 온 젊은 문사의 학문과 기세를 부각시켰다. 2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은 것으로 ‘동남 땅 인재[東南美]’ ‘일월처럼 빛난다 [日月光]’고 하여 성우증의 시재를 칭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성우증이 도주에게 보낸 『與陶給事澍書』에서는 진정한 시 벗으로 자신을 대우해 준 도주의 후의에 감사해 하며 그와의 만남으로 인한 벽찬 감동을 오롯이 표출하였다.

陳用光(1768~1835)은 편수관을 거쳐 禮部左侍郎·提督福建·浙江學政 등을 역임하였다. 성우증이 조선으로 돌아온 후 보낸 『寄陳侍御用光』에 두 사람의 우정이 잘 포착된다. 진용광은 성우증에게 『白鹿洞志』 6권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때 성우증은 집 근처에 菁莪齋를 짓고 문사들과 시를 짓곤 하였다. 마침 진용광이 보내 온 『백록동지』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을 기뻐하여 특기하였다. 『與陳御史用光書』에서는 이들의 우정이 한층 더 빛을 발한다. 성우증은 연행에서 돌아와 진용광과의 교유를 회고하며 문장이 바르고 덕의가 충만한 神交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편지에서는 진용광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청에서 교유한 문사들의 안부를 묻고는 衎衎의 거리를 추억하였다. 이어 진용광이 부탁한 『四子書纂疏』를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고, 先祖의 문집을 뽑아 보내며 자세한 비평을 부탁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용광이 성우증에게 열 폭에 달하는 글을 보내왔으며, 성우증은 이를 지나라 성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여 특별한 애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이 雪浪石처럼 견고하여 비록 떨어져 있지만 변치 않기를 기원하였다. 이처럼 성우증이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성우증은 葉志詵·周達·巫宜樛 등에게도 시를 보내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咏子午井贈葉東卿志詵』은 섭지선(1779~1863)

이 子午井의 주인임을 염두에 두고 쓴 시이다. 하루 중 오직 子初, 午正 두 시간만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 매우 달고 시원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짙은 맛이 난다는 신이한 자오전을 도가와 천체의 이미지와 연동시켜 환상적이고 신이한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무의계(1790~?)에게 준 5언 고시 『贈巫雨池宜稷』⁴⁵⁾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단락은 무의계의 학문적 역량이 가학에 근원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단락은 빛나던 가문이 중간에 쇠락해졌지만 농사짓고 학문을 닦으면서 결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세 번째 단락은 무의계의 해박한 식견에 대하여 말한 뒤 연경에서 자신과 교유하게 된 상황을 말하였다. 무의계에 대한 애정 어린 당부가 잘 드러난 시다. 周達에게 쓴 『寄周菊人達』에서는 연꽃과 국화를 사랑한 주렴계의 아취와 절개를 고평하고 그의 후손인 주달을 격려하였다. 주달이 성우증에게 주련과 부채를 보내왔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성우증과 청 문사들의 교유는 1818년 겨울부터 1821년까지 이어졌다. 무인연행으로부터 30년 후 연행하는 동생에게 안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한 청의 문사 중 도주와 진용광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동안 성우증은 이들의 생사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는 위 기간 이후에는 서로의 연락이 거의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도주는 1819년 12월 지방관으로 부임한 뒤 계속 외직을 전전했기 때문에 入燕한 다른 조선 문사들과의 접촉이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성우증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의 학문적 역량과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 문사들과의 교유가 그다지 포착되지 않는다. 진용광의 경우 김노경·김명희 부자와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많은 서찰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⁴⁵⁾ 김노경과 김정희·김명희 부자는 이상

45) 후지츠카 지카시 저·박희영 역(1994), 위의 책, 292~295쪽.

적·조수삼 등 역관으로서 여러 차례 연행한 이들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만큼 청의 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였다. 이들과 달리 성우증은 한 차례의 연행에다 지속적으로 가교 역할을 담당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청의 문사들과 교류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교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성우증이 청의 문사들과 창수한 시는 대부분 상대방의 인품과 시재를 칭찬한 뒤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의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성이 오롯이 표출되어 우정이 빛을 발한 경우가 더 많다. 청의 문사들은 한 목소리로 성우증의 시재를 칭찬하였으며, 종종 책과 글씨를 보내오고 십여 폭에 달하는 글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교류한 3~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성우증에게 있어 이들과의 교류는 神交이자 得意處라 하기에 충분하다.

참고문헌

- 成仁鎬, 『家世傳考』, 昌寧 成氏 桑谷公派 家藏本.
- 成祐曾, 『茗山燕詩錄』, 『연행록전집』 69,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成祐曾, 『茗山集』, 연세대 도서관.
- 成泰永, 『昌寧世譜』, 昌寧 成氏 桑谷公派 家藏本.
- 成海應, 『研經齋全集』 273~279권,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 李裕元, 『林下筆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李璣秀, 『靑霞紫雲館遺稿』, 국립중앙도서관.
- 祁雋藻, 『太乙舟文集』, 상해고적출판사, 2001.
- 陶澍, 『陶文毅公全集』, 상해고적출판사, 2001.
- 徐世昌, 『淸詩匯』, 북경출판사, 1996.
- 翁方綱, 『復初齋文集』, 문해출판사, 1969.
- 박인석,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I』,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2004, 173~187쪽.
- 성장경, 『疎溪公宗中先祖傳記』, 동진문화사, 2014, 1~288쪽.
- 손혜리, 『靑城 成大中의 文學活動과 文學論』,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0, 1~92쪽.
-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1~340쪽.
- 손혜리, 『茗山 成祐曾의 생애와 연행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237~270쪽.
- 한영규,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19세기 조선의 한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261~297쪽.
- 후지츠카 지카시 저·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568쪽.
- 후지츠카 지카시 저·후지츠카 아키나오 편, 『淸朝文化東傳의 研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의 金阮堂』, 國書刊行會, 1975.

ABSTRACT

Research on the Aspect and Meanings of Companionship
between Sǒng, U-chǔng and Scholars in Qing Dynas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Son, Hye-ri

This paper studies aspect and meanings of companionship between Sǒng, U-chǔng and scholars in Qing dynasty during diplomatic mission in the year of Muin(1818).

He made an exchange with scholars in Qing dynasty about poems and letters, and included them in Myǒngsanjip. It is a valuable material which is the only record of diplomatic mission in the year of Muin.

It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that verifies aspect of diplomatic mission in the year of Muin and fills a gap in Yǒnhaengnok studies from 1817 to 1821.

Sǒng, U-chǔng thinks compan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thing during diplomatic mission. He met Do Ju(陶澍) and Jin, Yong-gwang(陳用光) who were well-known in Qing dynasty, and they built human networks.

They exchanged poems which were related to compliments of personality and poetic talent, and expressed wishfulness and longing for saying goodbye. They are not always ceremonial, they are much more sincere and truthful. So, it is enough to say that their companionship is tüküich'ǒ(得意處) and sinkyo(神交).

Key Words Sǒng, U-chǔng(成祐會), Diplomatic Mission in the Year of Muin, Myǒngsanjip, Do Ju(陶澍), Jin, Yong-gwang(陳用光), Companionship

논문투고일 : 2016.7.14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22